

혼돈의 시대 풍미한 잡음과 소음

탈이념의 사회상황 반영한 90년대 대표적 논쟁들

80년대 문단이 문학의 사회성과 예술성을 둘러싼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선명한 대립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면, 이념의 깃발이 내려진 90년대 문단을 지배한 것은 문학(비평)의 위기와 상업주의의 막대한 질주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선명한 진영은 해체되고 위기의 담론이 넘쳤으며 문단 상업주의는 더욱 노골화됐다. 따라서 90년대는 '중심'을 상실해간 시대에 진정성의 문학이 놓일 자리를 찾는 잡음과 소음의 연대로 기록될 것이다.

■ 혼성모방과 표절 논쟁

90년대 문학지형에서 가장 폭발성이 강했던 문학적 사건은 단연 '혼성모방'과 '표절'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92년 제1회 '작가세계 문학상' 수상작인 이인화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세계사)가 출간되자마자 '혼성모방' 기법의 문학적 유효성을 두고 거센 논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문학평론가 이성욱은 이 작품이 공지영,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등의 작품을 도용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인화는 "혼성모방(패스티시)은 새로운 소설쓰기의 모색"이라고 맞받아쳤다. 영문학자 김옥동과 문학평론가 유중하도 가담해 각자 옹호와 비판에 가세했다. 이듬해 7월 발표된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세계사)도 외국작가의 작품에서 각종 모티브를 응용했다며 다시 표절시비를 불렀다.

97년도 여름에는 제3회 '현대시동인상' 수상작에 대해 중견시인 오세영이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가 자신의 시의 소재와 시적 상상력이 똑같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대희는 "오씨의 그 시는 읽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진규 시인은 문제의 시가 보편적 발상이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영은 다시 "소재나 표현이 같으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오씨의 반론을 폈다.

같은 해에 문학평론가 남진우씨는 《문학동네》 여름호에서 "짧은 작가의 상당수가 음·양으로 하루키에게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대녕이나 이응준은 하루키 문학을 진지하게 소화해 결실을 거둔 반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박일문과 장 아무개, 구 아무개 등은 하루키를 조잡하게 모방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 문단 상업주의·패거리주의 논쟁

국내 문단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상업주의에 대한 논란도 열전의 양상을 보였다. 97년 7월 《현대문학》이 '죽비소리'에서 제21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인 《낯선 천국》을 "습작 수준도 안되는 작품"이라고 폄하하자 이 상의 심사를 맡았던 작가 하일지는 중앙일간지에 평자의 수준에 의혹을 나타내는 반박문을 실었다.

같은 해 겨울 이용욱은 계간 《버전업》 겨울호에서 신예 소설가 김설의 《게임오버》에 대해 혹평하는 한편 소설을 출간한 문학과지성사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학평론가 권성우씨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서 김병익의 《게임오버》에 대한 평론이 출판상업주의에 오도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해 일어난 유미리의 '타일논쟁'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문학평론가 한기는 《문예중앙》 여름호에서 이광호의 평론 〈우리가 유미리를 읽는 몇 가지 이유〉(세계의 문학) 봄호)가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타일》을 출간한 출판사와의 담합으로 작품을 과대평가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광호는 한 일간지에서 한기가 《타일》과 자신의 비평을 오독했으며 작품 감상이 연결됐다고 반박했다.

각 문예지들 사이의 완고한 문단권력에 대한 비판도 90년대 말에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문학평론가 방민호는 《창작과 비평》 97년 겨울호에서 백낙청이 신경숙의 《외판방》을 당파적 목적 아래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우도 지난해 《리뷰》 여름호에서 《무예》·《창작과 비평》·《문학과 사회》 등을 대상으로 계간지 중심의 문단권력을 비판했다.

■ 대중문학론 논쟁

94년과 95년은 각 문학계간지들 사이의 '대중문학론'을 둘러싼 논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논쟁은 94년 《상상》 봄호가 '독자중



심주의'를 제기하면서 부각됐다. 이에 대해 문학평론가 방민호와 윤지관은 《실천문학》 가을호에 《상상》의 "대중문학론은 문화산업의 논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탁환은 《상상》 겨울호에서 이들의 주장을 시대착오적이고 엘리트주의적 교만이라고 공격했다.

윤지관은 이듬해 《창작과 비평》 봄호에 이들의 주장을 "대중의 존재와 가치를 신비화하고 추상화"하는 대중추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성우도 《세계의 문학》 겨울호에서 《상상》을 "비평의 이름을 빌려 추악한 문학적 권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이비 문학적 집단"이라며 "비평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상품미학과 결합하면서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실례"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 메타비평 논쟁

지난해 문단을 달군 화두는 비평가의 자질과 태도에 대한 논란이었다. 논쟁의 발단은 문학평론가 홍정선이 《문학과 사회》 여름호에 "80년대 이후 평론가들이 양산되면서 상당수의 비평가들이 함량미달의 자질을 갖고 있다"면서 강형철·정끝별·신철하·윤지관 등의 비평문을 공박했다. 그는 정끝별이 김소월의 시 〈왕십리〉를 잘못 해석했으며, 윤지관과 강형철 등 민족문학 진영 평론가들이 리얼리즘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왜곡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신철하의 글에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며 비문의 혐의마저 잡힌다고 혹평했다.

비판의 표적이 됐던 당사자들은 텍스트를 대하는 홍정선의 불성실한 태도를 공통적으로 문제삼았다. 강형철은 《중앙일보》에 홍씨가 문단 패권주의를 부추기거나 비판자의 권위만



90년대 대표적 논쟁에 참여했던 평론가들. 윗줄 왼쪽부터 이인화·홍정선·이광호, 김탁환씨.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끝별도 《한겨레》에 홍씨가 텍스트를 일방적으로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철하는 《문학사상》 7월호에 "내가 비평의 ABC도 모른다면 홍씨는 비평의 가나다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격했다.

■ 페미니즘 논쟁

97년 이문열의 《선택》(민음사)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은 문단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서 오히려 문단 밖의 여성계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조 여성을 화자로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한 《선택》은 여성작가인 이경자·공지영의 작품제목을 인용하면서 여성운동가들을 비난한 대목의 선정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단에서는 대체로 미학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든 평가가 우세했고, 비난의 당사자들도 《사랑과 상처》·《착한 여자》 등으로 대응했지만 여성논객들이 신문·잡지 등을 통해 이 작품이 여성·여성운동을 폄하·비난했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작가가 여성억압의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봉건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란은 여성운동쪽의 거의 일방적 비난과 방어로만 일관돼 문학적 논쟁으로 적극 수렴되지 못하고 말았다. — 박천홍 기자